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발행처: 서울특별시 중구 회충동 1가 11-1 충현교회 서촌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5-9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권

교구별로 실시하는 태신자 초청 전도집회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추수꾼들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

“너희가 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회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

전도위원회와 교구위원회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교구별 태신자 초청 전도집회가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요즈음 사람들마다 전도하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사람들이 바쁘고 신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교회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이유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들도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한 믿음의 추수꾼들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중 상당수를 결신시키고 있는 추수꾼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 따라서 전도가 되지 않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구령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즐기차게 복음을 전한 자(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온 성도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구령의 열정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전도의 열매는 여전히 맺히고 있다. 따

라서, 금번 교구별 전도행사가 온 교회 안에 구령의 열정의 불길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은 성도들은 마음 다해 동참하며 기도해야 하겠다. 교구별 태신자 초청전도집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교구	날 짜	교구	날 짜
1	11월 6일	10	11월 6일
2	10월 30일	11	10월 29일
3	10월 19일	12	10월 28일
4	7월 10일(실시)	13	10월 30일
5	10월 29일	14	11월 7일
6	10월 16일	15	11월 5일
7	11월 13일	16	10월 22일
8	8월 14일(실시)	17	10월 16일
9	10월 31일		

터키 구호금 전달

교회는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터키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호금(5천불)을 전달하였다(사진). 성도들은 온 세계 각국의 교회와 선교기관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하고 있는 헌금이나 물자들을 통해 터키 정부가 선교사들에 대하여 좀더 개방적인 정책을 펴도록, 터키인들의 마음이 복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고 김여순 장로 교회장



우리 교회 시무장사로 섬기던 김여순 장로(사진)가 지난 9월 25일 지병으로 소천하여 27일 본당 일대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고 김여순 장로는 1992년 제26대 장로로 장립받은 후 초동부, 장부부, 전도위원회, 예배위원회, 봉사위원회, 총원동산에서 총성 봉사하여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현계식 권사와 아들 김성철, 김성진 집사, 김성진 성도와 자부 유승렬, 정영남 집사, 주정순 성도, 그리고 8명의 손자, 손녀 등이 있다.

LMTC 집중강의 시간 변경 오후 9시에서 8시 10분으로

토요일 저녁에 참여하기 어려운 성도들과 및 단기선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교연구원 LMTC 집중강의의 시간이 수요예배 시간 변경에 따라 다소 조정된다. 본래 시간은 수요2부예배 후 오후 9시부터 12시였으나, 예배가 8시에 끝나게 되므로 강의 시간을 8시 10분부터 11시 10분까지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9월 29일부터 수강을 시작한 성도들은 10월 13일과 20일, 27일 그리고 11월 3일에는 수요2부예배 후 8시 10분까지 교육관 109호로 모이면 된다.

제5차 학습세례식 이번달 10일, 17일에 교육

1999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이 10월 24일 찬양애배시에 거행된다. 따라서 학습과 세례, 유아세례, 입교, 개종 등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특히 아래의 교육일정은 최소한의 과정임을 감안하여 꼭 참석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경건의 훈련 속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날짜	시간	목회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0월 10일(주일)	12시 15:30-15:50	정경호 목사 (영원한 목회)	교육관 31호	세례자 (영원한 목회)	교육관 30호		
	22시 16:00-16:50	기독교개도 (영원한 목회)	교육관 31호	교회는 (영원한 목회)	교육관 30호		
10월 17일(주일)	12시 15:30-15:50	구원훈 목사 (이웃을 사랑)	교육관 30호	구원훈 목사 (이웃을 사랑)	교육관 30호	유아세례자 (영원한 목회)	교육관 31호
	22시 16:00-16:50	문달 목사 국무청	문달 목사 국무청	문달 목사 국무청	국무청		
10월 24일(주일)	찬양애배	성인분류 세례식 (여석 분당세, 찬양)		성인분류 세례식 (여석 분당세, 찬양)	성인분류 세례식 (여석 분당세, 찬양)		

스리랑카 단기선교 10월 6일 출발

스리랑카 단기선교팀이 10월 6일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스리랑카를 향해 떠난다.

이승수 목사(선교위원회 지도), 오태규 전도사(외선부 스리랑카팀 담당), 오경희·추진희 자매(99 여름 스리랑카 단기선교단원) 등 4인으로 구성된 단원들이 금번 단기선교를 통해 감당할 사역은 지난 여름 사역의 결과를 점검하고, 외선부 출석 스리랑카 지체들의 가정들을 섬김하여 복음을 전하고, 지난 여름 사역에서 접촉했던 현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 사역을 모색하는 일 등이다. 선교적 제약이 많은 나라일수록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사역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감안할 때, 금번 스리랑카 방문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내년 겨울 단기선교사역 시에는 고등부팀이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현지인 청소년들과 연합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중보기도가 요청된다.

피택자 종강예배

지난 주(9월 26일) 찬양애배 후 갈릴리움에서는 피택자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육 종강예배가 있었다. 이들 중 피택안수집사 및 피택권사들은 어제(10월 2일) 본 교회에서 피택자 고시 및 면접을 실시하였다.



사랑부 장애인 초청 전도집회

사랑부는 지난 9월 29일 사랑부사랑에 장애인초청 전도집회를 가졌다. 식탁의 교제와 예배, 찬양과 자기 소개 등을 통해 사랑부 지체들과 복지관 소속 장애인 지체들, 그리고 기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나누었다.



새벽기도회 · 수요2부예배 · 금요집회 이번 주부터 시간 변경

올해도 하절기가 끝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회의 시작 시간이 오전 4시 40분에서 '5시'로, 수요2부예배, 금요집회의 시작 시간이 오후 7시 30분에서 '7시'로 조정됩니다. 예배와 집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변경되는 시간을 고려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바벨론을 떠나라

(이사야 48장 20-22절)

(이사야 48장 20-22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1.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바벨론을 떠나 유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레스 왕이 선포하기 오래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을 떠나되 슬픔과 수치로 떠나지 말고 옛적에 애굽에서 탈출하였을 때처럼 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르면서(출 15:1) 나으라고 하십니다.

(1) 바벨론을 떠나기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건강한 바벨론 군대가 떠나는 유다 민족을 내버려 둘 것 같지 않았습니
다. 둘째로, 바벨론의 부유가 유다 민
족을 보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을 고려가 가득한 바벨론에서 그들이
하는 데로만 하면 먹고 입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
기까진 유다 민족이 바벨론을 떠나서
독립한다는 것은 고생을 자초하는 것이
기 때문에 바벨론을 떠나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셋째로, 바벨론의 앞잡이
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잊기 때문일
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떠났다가는 자
기들의 신변이 위험할 것 같습니까. 그
래서 바벨론을 떠나기가 매우 힘이 들

그러나 하나님은 마벨론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다. "너희는 마벨론에서 나와서..."(20절)

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라리 마벨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편함을 같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하여 떠나라고 하시니 오히려 걱정이 되었겠으나, 그러나 우리 민족은 강한 마벨론에게 아첨하지도 말고, 부요한 마벨론에게 유혹을 받아 주지않지도 말고, 잔인한 마벨론이 부딪고나 그들과 타협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믿고 마벨론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것은 '본토'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섰다 자꾸 동지를 옮기면 갖가지 핏줄고 사담도 자주 이사를 하던 것같이 하나 둘 깨져서 가난뱅이가 되기 쉽다는 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는 뜻을 향하여 점차 말한 소들, 고라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동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여러분도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합니다. 멸망의 땅 소들과 고라도 성을 떠나야 합니다.

(2) 하나님만 믿고 바벨론을 떠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믿고 떠나면 강한 바벨론이
다시 손을 대지 못함이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는 원수도 많
기때문에 거쳐야 했습니니다.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아
나님 믿고 떠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이스
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났
다 하시는데도 불구 하늘을 뚫고 내리
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만가나 내리
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홍해가 열
렸습니다. 그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가는 길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더니 원수
에게 잡혀 죽은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수리를 거두고 대접을 받고 믿음의 조
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벨론을 떠날
줄을 알아야 합니다.

2. 바벨론을 떠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구속을 선포하며 가라고 하십니다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
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
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
라”(29절)

유다 민족이 실력이 있어서 애굽을 이겼기 아닌 것처럼 유대 민족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실력이 아니라 의로움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멸망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망설임까지 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성도는 악마의 그물을 벗어나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교만까지도 범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자랑해서 시 열음을 삼아야 합니다. 바벨론을 떠난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2) 조상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21절)

하나님은 유다 민족에게 옛 조상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밤새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였고 가나안 족지를 준비하였습디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머무르거며 뒤를 돌아보다가 망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막대 민족은 바벨론에서 머무르거지 막대 떠나가만 한데 하나님께서 옛날 조상을 불러 그들을 돕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고 보급하시고 인도하소서 진실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바벨론을 떠나라와 멸망하지는 것이입니다.

3. 바벨론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의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22절)

만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을 더 무서워하고 그들의 은근보화를 탐내면 그들의 잡이도 우리를 계속하면 악인이라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낙인 찍히면 세상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어도 평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כן,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라고 판결이 나면 누가 간직하겠습니까? 권질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너는 악인이다" 평강이 없다! 선언하시면 우리에게는 몸의 평안도 마음의 평안도 영혼의 평안도 없고 세상의 평안도 내세의 평안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면서 돈을 모으고 악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육신의 권세와 명예가 생겼어도 거기에는 마귀가 등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족은 바벨론을 떠나야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악인이 되므로 평안이 없게 됩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이나 천재로 악인은 거기서도 사람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고 뒷사람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줄러 더러는 물음 거스르고 올라 가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힘든 일을 하면서 죄를 범 합니까? 양심이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고 또한 복을 받는 것인데 우리 때문에 거스르니까? 이것은 욕심에 충동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복을 다하지 않는 게요. 큰 사람입니다. 재색로, 악인은 선물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악을 하고 거짓말을 떠먹듯이 하여 선물을 지키지 않고, 돈 거래에도 선물이 없습니다. 선물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하 겠습니까.

나아가 절개도 팔아먹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 악인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첫째로, 회개할 때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속죄의 하나님께는 사함을 입는다. 회개하는 자의 마음은 평강이 임합니다. 둘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열심에 순종하고 이웃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셋째로,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선용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요셉은 절개를 지키려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도바, 메세, 아벳—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다가 풀뚝뚝에 던져졌습니다. 한의 어려움도 신앙인에게는 지키려다가 죄와 연을 만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열매에 성숙을 주십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권수가 손에 대지 못하였습니까. 그리고 입을 것들이 풍성하였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아울러 자유의 복을 누렸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거나 높은 명예와 만고의 찬사와 많은 재산과 훌륭한 자손을 얻었습니까. 그와 더불어도 바벨론을 떠나기를 바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고 사람들과 분리하지 말고 세상의 물결에 마음이나 뜻이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먼저 죄악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데 자유로 승려, 고난과 고통을, 그 외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좋은 것들을 다 주십니다.

바벨론을 떠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갈라서 바벨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가면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상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좋다고 머물러 있으면 악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평강이 없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바벨론을 떠나면 밀집 구원을 성취하고 목표에 도달하므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성관 목사

불쌍한 자녀들 (신명기 1장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두려워하는 부모들

노브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곧 그들의 부모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반면 오히려 이 무지한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 노예생활을 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겁과 두려움 속에서 환경과 현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갈 자들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바뀐 계획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땅아를 거쳐 이곳 노브산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들의 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었습니다. 반면, 그 자녀들은 비록 무지하고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던 계획 속에서 약속의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순종한 소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들은 불순종을 통해 자녀들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5절).

연합을 배운 자녀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역대하 34장 30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무른노소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와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법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라고 증거하였듯이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예배 중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남디노소가 왕과 모여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속과 믿음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

고자 하였고,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가나안은 정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왔습니다. 그 땅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고, 그 땅에 빛이 임함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어리석고 쓸모없는 종이요 배역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은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용기와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어둠의 세상이 하나님의 신하신 뜻에 의해, 빛에 의해 정복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

의해합니다. 이 땅의 유산과 인간적인 선행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불순종의 대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 4:6).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닫혔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는 열렸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나쁘다. 천하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

는지 다시 들어보십시오. “오직 내 종 갈렘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값된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 14:24). 갈렘은 자신의 환경이나 여건을 두리러하지 않았습다. 자기의 소유물들을 계산하지도 않았습다. 오직 하나님을 좇았습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렘은 세상적 관점에서의 성공을 쫓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성공적이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성공적이었던 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제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소니 부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2). 이 말씀은 교만과 어둠의 땅을 향해 탈출로부터 내리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들을 죄에 묶는 저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우리 위에 축복을 무로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광야에서 드러났지만, 그들의 불쌍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주신 “가나안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마11:5)는 믿음의 격려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열려있고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안전할 것인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우리는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맙시다. 끝내 믿읍시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라 축복된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로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받던지 버리거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부터 붙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알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닫혔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는 열렸습니다.

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되는 그 날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성취되리라 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쓸모 없는 자들이요 배역하는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가나안이 빛 대신 어둠에 의해 정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하고 배역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한다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그릇된 길을 갔지만, 우리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물들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 3:9)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

신과 불순종은 어떤 경우에도 명백한 죄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 4:11).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부모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렘처럼

누구든지 여호수아와 갈렘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약속에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아들 갈렘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 너의 종과 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들을 대대 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적으로 얻게 하리라” (36, 38절). 이 두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지적으로도, 신신하게, 의의 권에 서서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와 편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끝까지 약속의 땅을 기업을 받았습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

세계 선교

은혜 속에
힘내기, 맛내기

인신부 주석들이 인도인 조청전도사들과

선교위원회 소속인 국내 외국인선교부(이하 외선부)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9월 24-25일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전도 채육행사를 총현기도원에서 가졌다. 100명을 예상했으나 당일 200명이 몰려와 목격거리는 행사 분위기를 돋구었다.

장소 사용 계획은 기도원과 초등학교 운동장이었으나 전일까지 내린 비로 기도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여러 교회에서 해외 근무자를 위한 유망가수 초청공연이 있다는 사전 정보로 예상 인원을 150명(교사 포함)밖에 세울 수 없었기에 갑자기 증원된 100명분의 식사를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기도원이 적격이었다.

행사 내용은 연휴기간이 멀절인 만큼 자국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다. 나라별 특성을 고려한 운동과 음식 준비를 특별활동으로 배려했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크리켓, 인

도네시아인들을 위해서는 배드민턴, 중국인들을 위해서는 족구를 할 수 있도록 공간과 기구들을 마련하여 오랫동안 응수했던 신체를 고향에서처럼 쭉쭉 뻗고 뛰고, 달리고, 휘두르는 시간이었다.

나라별 고유음식을 만드는 시간도 가졌다. 각 나라를 대표할 음식들을 두 가지 정도로 만들어 나눠 먹으며 하나되는 음식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때 사용된 재료 또한 대체적으로 본국에서 수입한 재료들을 사용했다. 몽골의 양고기 요리,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의 닭고기 요리, 중국의 고기만두, 우즈베키스탄의 기름에 튀기는 소고기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카레 볶음밥 등을 만들어 국가별로 나눠 먹었다. 비록 서로의 식성이 달라서 모든 음식들이 구미에 당기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아주 맛있었다. 음식문화만으로도 선교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국내에서는 조금 뿌린 사과를 먹는 느낌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고, 밤에

우유와 설탕을 듬뿍 넣고 끓인 푸딩을 경험하지 못했고, 물 대신 기름을 넣고 끓인 국, 2초만에 만들어지는 만두를 바로 결어써 보며 그들의 세계관을 조금이나마 탐구할 수 있었다.

모든 유쾌한 시간을 마치고 차병준 목사님의 열망이 담긴 말씀을 통해 낮 시간 동안의 충분히 열려지고 고조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기도회는 비록 그들이 온전한 신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게 했다.

추석인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찾아뵙자 할 신생남들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들을 감사사를 드리며,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들에서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조용자 선교전도사)

민족 복음화

계속되는 전도! 전도!

‘전도의 미려한 것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비밀’

태신자 갖기운동
결실을 기다리며
마지막 추수 준비 중

1999년도 1월 첫주부터 지난 주일(9월 26일)까지 우리 교회에 전도되어 등록한 새가족은 총 1,332명이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다. 이들이 부름받기까지 이 미미 찾아뵙은 하늘의 은총과 섭리는 찬탄했을 것이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린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누군가 가서 전했기 때문에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이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다면’ 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도위원회와 각 교구가 긴밀하게 연합하여 실시하는 태신자 갖기 운동 및 초청전도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초청대상자는 전체적으로 1천 5백여명에 달한다. 이 숫자는 1월부터 9월까지 등록한 성도들의 숫자를 넘긴다. 물론, 이들 모두가 결신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초청되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이들 인생에 있어서 큰 신앙의 자취가 될 것만은 틀림없다. 이미 초청 집회를 실시한 교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구들(15개 교구)은 10월 16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3일까지 연속적으로 태신자 초청 전도집회를 실시한다(교구별 실시 일정은 1면 참조). 태신자, 곧 초청 대상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척,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친구 등이다. 따라서 이들을 초청하는 성도들은 눈물 어린 기도를 계속해 왔을 것이다. 충현의 성도들은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자신의 임무를 자각하면서 물론 힘써 참여할 뿐 아니라, 소중한 영혼을 놓고서 눈물로 기도해 오는 동료들의 기도가 결실할 수 있도록 권려와 중보의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예수 세상을 꿈꾸는 이들
어린 영혼 찾아 학교 밖으로
유·초·소년부 연합 모색 중

지난 수년간 계속되어온 학교 앞 전도. 이 귀한 ‘영혼 찾기’는 헌신된 교사들의 열매가 충성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왔다. 이 아름다운 일을 그동안 쉬임없이 계속해온 부서가 유년부다. 유년부는 부장, 지도 교역자 및 헌신된 교사들을 중심으로 토요 학교 앞 전도를 지속해 오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믿음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왔다. 전도된 아이들의 부모가 반대하여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로 인해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많은 아이들을 실어나를 차량이 마땅치 않아 곤경에 처한 경우도 있었고 교회에 나온 태신자 어린이를 잃어버려 곤혹스러웠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도 영혼을 구하려는 열심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학교 앞 전도는 방학이 아닌 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되었다. 이에 인해 유년부 교사회 전체 분회기도 구령의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매주 새로 나오는 어린이들은 유년부를 신신체제 바꾸는 힘이 되고 있다.

이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교사, 아이들 주소를 받아적고 관리하는 교사, 손수 차를 몰아 주일 아침마다 아이들을 실어나르는 교사, 이들을 맡아 수주간 심령성 교육을 잘 시키는 교사 등 많은 일꾼들이 연합하여 진행되는 이 아름다운 대열에 이제는 초등부와 소년부도 가세할 뜻을 가지고 효과적인 방안을 열심히 모색하는 중이다. 사실, 유년부 교사들이 초등 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기 때문이다. 유년부와 초등부 그리고 소년부도 힘을 모아 교회 주된 초등학교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교회가 어린이들의 찬양소리로 더욱 뜨거워져 가도록 성도들은 권려하고 기도해야 하겠다.

어린이 · 부모 · 교회를 위한 새로운 교육의 장 마련

송원석(전도사, 초동부 지도)

유·초·소
주일 오후 프로그램에 관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유·초·소 3개 부에서 소속된 학생들은 교회의 근간이 되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쓰여질 미래의 귀한 천국일꾼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바른 신앙의 교육을 통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는 총력을 다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늘 변해가는 시대에 걸코 변화하지 않는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 주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헌신되고 전파된 교사의 창의적인 교육 방법들은 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바른 신앙인으로 생활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1400명에 달하는 이들을 위한 교회학교 교육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여 12시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있다. 즉 예배, 분반성경공부까지의 신앙 교육을 1시간 30분만에 걸쳐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당 30여 시간에 달하는 학교교육에

비하여 20분의 1에 불과하다. 이 시간 동안 내실있고 실제적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할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주일 오전에는 장소와 시간 등의 문제로 현재 교육을 연장하기 어렵고 평일에는 거리,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는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어렵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문제가 해결되는 주일 오후에 기존의 교육을 보완할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다.

이 시간을 통해 신앙 교육의 새 장을 열고자 한다. 기존의 교회학교가 계획하고 준비하고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한 것을 시도한다. 즉 주일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인 협동학습 방법을 의한 열린 교육을 시행하고자 한다. 교사와 학생을 인격적으로 연결하여 배운 말씀을 그림 그리기, 연극, 종이접기 등을 통하여 실생활에 적용시켜 살아 있는 말씀으

로 느끼게 하며 재미있는 교회학교가 되도록 할 것이다.

주일 오후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교회학교, 찬양대, 교구 등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은 봉사 시간, 교구 모임과, 찬양예배 시간에 지나 관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주일 오후 시간에 어린이들은 방치 상태에서 안전이 보장 받지 못하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교회 주위를 배회하거나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예배시간 등을 소란케 하고 있다. 이는 부모들의 봉사를 어렵게 하는 한편 아이들은 시간을 낭비하며, 교회적으로는 경건한 예배를 어렵게 하고 있다.

새롭게 시도되는 주일 오후 프로그램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에 속한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바르게 하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직분자들의 봉사를 원활케 할 것이다. 성도들의 사랑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아이들이 잊을 곳을
찾게 되었어요

윤숙희(집사, 12교구, 유년부 교사)

기쁘고 즐거운 주일의 날, 이른 아침부터 찬양예배 끝나기까지(혹은 교구 모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각 부서의 일꾼으로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보람된 일이다. 더욱이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원 혹은 교구 직분자로 열광해 웃을 미금과 흥중거리며 바른 봉사자들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쁨과 감동을 줄 것이다.

하지만 봉사하시는 직분자들의 어린 자녀들은 어린이 각 부서 예배가 끝난 후 마땅히 받을 만한 교육 기회와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원 혹은 교구 직분자로 열광해 웃을 미금과 흥중거리며 바른 봉사자들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쁨과 감동을 줄 것이다.

하는 등 무의미하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교육위원회에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3개 부서의 초동부생을 대상으로 주일 오후 집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자칫 무의미하게 주일 오후를 보내야 했던 어린이들에게 수준 높은 신앙교육을 시키며 안전한 교육인 협동학습이나 시청각교육 혹은 특기교육(악기, 컴퓨터, 연극 등)을 시키려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적극 후원,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나는 소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신나만의 고민이 생긴다. 전철을 타고 동생과 집에 가 있어야 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가기 위해 오후 3시까지 기다려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은 함께 집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침 예배와 찬양 연습이 끝난 후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

교회 안에서 뛰어나거나 빈 방에 들어가서 피아노도 치고 교회 앞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지만 쉽게 지루해진다. 그래서 남은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 특기나 취미를 살리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 악기나 율동, 글짓기, 또는 영어성경공부, 찬송부르기 등을 한다면 얼마나 유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회 도서관을 이용할 때 아이들은 이용할 수 없고 부모님처럼 어른들과 함께 들어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도 고쳐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교회이지만 세계에서 어린이 교육에 1등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이 교육에
1등 교회 되었으면

김지혜(소년부)

우리 아이들, 이태오!

강영희(집사, 중동1부 상담교사)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결같이 "어른들은 우리들을 너무 몰라요. 우리들의 고민을 이해하지 않으려 해요. 어른들은 언제나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려고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에 맞는 친구와 상담하게 돼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우리 친구(성대)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안 그랬는데...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을 만족해 합니다. 정말 좋은 대담자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사 합니다. 언제라도 마음을 열고 우리 친구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크고 작은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슬플 땐 같이 울 수 있어야 하고, 기쁠 때에는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같은 마음이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밝고 고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동1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작은 고민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1. 친구 문제

● 마음에 꼭 맞는 친구를 갖고 싶다(진정한 친구가 없다). ● 친구와 다투고 소외감을 느낀다(왕따가 있다). ● 내가 친하고 싶은 친구를 다 친구가 더 좋아한다(질투심). ● 친구와 갈등이 심하다(경쟁심, 무시한다, 비밀을 지키지 못해서).

2. 자신에 대한 문제

● 외모에 대한 열등감(나는 예쁜 곳이 없다) ● 미래에 대한 뚜렷한 희망이 없다(불안하다). ●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다(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3. 신앙 문제

●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소명 의식).

4. 공부와 성적 문제

● 공부하라고 하면 잠님이 생긴다(TV 보고 싶다, 컴퓨터 게임). ● 노력해도 보지만 별효과 없이 성적이 떨어진다. ●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5. 가정 인생사의 문제

● 부모님이 지나치게 간섭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함. ● 가난한 가정형편이 싫다. ● 부모님이 싸우실 때(거슬러나니 반항하고 싶다) ● 형제간의 비교가 싫다.

이제부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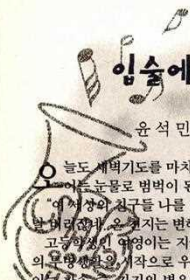
송나겸(초동부)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충원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 중에서 나는 초등부에 다닌다. 초등부에서는 각각 하면 안된다. 나도 지각을 한두 번 하다 보니 점점 많이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에 편지도 왔다.

나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며 쓰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주님 생각을 얼마나 안했는지가 다 나온다. 그래서 지금 지각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회회를 열심히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많이 하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사님 말씀도 귀담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 가는 날 교회 빠지지 않고 잘 지킬 것이다. 이제부터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장난 안치고, 맨 뒤에 앉는 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갓난아기때부터 충원교회에 다니고 영어부부터 유년부까지의 과정을 마치고 초등부도 다녔다. 전도사님도 좋은 분이고 우리 하느님 선생님도 또한 좋은 분이시다.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있다. 이제부터 회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내 입술의 찬송 임술에 찬송이 흐르는 한

윤 석 민(집사, 가브리엘한대원교회, 고봉무 교사)

늘도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여영이는 늘 문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찬송(449장)을 한다.

"여섯살의 친구를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를 버리지 않네. 온 세상은 변해도 내 버리지 않네."

고종황제님 여영이는 지금 10개월째 클론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여영이의 몸무게는 10kg로, 10개월의 나이로 우리 가족의 입술에는 찬송이 떠나지 않는다. 여영이와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의지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게 되었다. 그래서 여영이는 그 지루한 병상생활을 기도로 의지하여 잘 견디어 나가고 있다.

하나님은 여영이와 더불어 나에게도 신명생활을 방해하는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라는 말씀과 기도 외에 찬송을 신명 무기로 주셨다. 나의 찬송, 나의 기도는 341장이다. 나와 같은 환경과 처지에 있었던 작사자와 작곡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깊은 기도 가운데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이 찬송은 나의 온 인격에 감동되는 찬송으로 다가왔고 나를 믿을 가운데 든든히 세워갔다. 1절은 부르짖어 요셉의 형통을 체험하셨으며 감사의 첫 조건인 된 찬송이 되었고 2절은 믿고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3절은 여영이의 병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 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가 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우리 가족에게는 여영이의 병이 오히려 축복이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기 일운 기대한다. 나와 여영이의 입술에 찬송이 흐르는 한 결코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고 김여은 장로님!

그 몸의 고통스런 가시를 끌어안고 힘에 지나도록 다 싸우신 후, 이제는 자유한 몸으로 주님 품에 안기신 장로님.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얼굴을 맞대 수 있었던 그 고귀한 시선을 훌쩍 떠나보내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동역하던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렇게 장로님의 영전 앞에 눈물을 머금고 서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떠나시기 전까지 귀으신 그 많은 철교와 고통들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었으리마는, 아기에 서 있는 우리들은 오히려 먼저 천국에 가신 장로님을 부러워합니다. 그것은 장로님이 먼저 가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이고 장로님이 그 나라에 가시기까지 너무나 아릅답게 준비를 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로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향기가 너무나 진하고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와 장로님을 특별한 관계로 엮어 주시고 함께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들이요, 같은 날 집사 안수도 받고 또한 장로 임직도 같이 받았지요. 집사때부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손을 꼭 잡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고 다짐하던 그 순전한 출라산 시간들이 참으로 그리웁습니다. 그때마다 장로님의 크신 능동자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충성심된 결기가 가득 했었지요. 언제나 교회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밥을 흘리며 참석하는 장로님이 거기에 계시지요. 그러면서도 장로님의 입가엔 항상 웃음이 가득 했고, 얼굴엔 겸손의 향기가 났었습니다.

사랑하는 고 김여은 장로님,

장로님께서서는 오랜 세월동안 먼저 가신 성도들을 위해 한평생 정성을 다해 묘지리를 보시고, 그 많은 장례식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피딱딱 아래서 작업복을 입고있는 온 몸이 땅에 젖도록 힘들다며 땅을 파하시며 말없이 섬기시는 그런 장로님의 모습을 볼 때 제 맘에는 장로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가득해져온 듯했습니다. 한번은 장로님께 담담으로 "나를 먼저 동안 좋은 자리에 잘 정리해 주시고 장로님도 쉬다와 오세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보다 장로님이 먼저 가시어서 장로님의 방방울과 채취가 가득 이런 그 충헌동안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로님께서 떠나신 그 빈 자리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엔 슬픔의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품에 안겼으니, 그리고 고통과 아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셨으니, 우리의 눈물은 곧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뀔 것입니다.

장로님, 이제 더 이상 장로님의 인자한 얼굴과 충성심된 밝음들을 눈으로 봐올 수는 없지만, 장로님을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장로님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을 잡고 주께서 부르신 그 날까지 우리들이 이 길을 힘껏 걸어가겠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정녕 다시 만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옵소서. 부디 편히 쉬시옵소서.

1999년 9월 27일
함께 장로님 이해영 율림

주자장에서 들은 이야기들 "다음부터 잘 세울게요!"

하나, 차량봉사부 김 집사님은 도무지 안내원의 말을 듣지 않고 무뎌무뎌한 한 차를 여러 곳을 방문했다. "너니 이게 뭐야? 뭐 어기가 회사야? 예이 기 본 나빠. 교회야 뭐 이래"라고 고함을 치면서 다시는 교회에 안나왔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둘, 차량봉사부 이 집사님은 장애인 주자장을 차를 주차시키려는 것을 보고 장애인 주자장은 24시간 비워 놓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장애인 언제 올 줄 알고 주자장을 비워 놓아야? 장애인인 사람이야? 먼저 온 사람부터 세우시 다"라며 차를 대우 하지 말라고 재변을 늘어 놓는다.

셋, 차량봉사부 장 집사님은 전제 주자장의 흐름을 고려하여 안내했다. "이 자리는 누가 많이 놓는 자리인가? 먼저 말은 먼저지, 이런 때는 밀고 들어가면 땀이"라고 말하며 차를 무작정 들이밀 때 옆에 앉은 부인은 부장수를 의미해 "어! 빨리빨리 세워, 세우면 입차지"라며 남편을 응원한다.

넷, 차량봉사부 전 집사님은 세우는 곳이 아닌 곳에 세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기를 권유했다. 그 말을 들은 성도가 험상궂은 얼굴로 차에서 내리더니

주먹을 흔들며 "맛좀 볼래"라고 무섭게 욕박지른다.

다섯, 차량봉사부 박 집사님은 주차 공간을 지키지 않고 비스듬하게 차를 세운 것을 보고 바르게 세워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번만 바르게 세우세요. 다음부터는 잘 세울게요." 차를 바르게 세우는 생각은 하지 않고 애교적으로 두마라라고 웃기부터 한다.

여섯, 차량봉사부 홍 집사님은 티코, 프리이드 구역에 중형차를 세우려는 경우를 보고 달려가 저지했다. "한국땅은 밀고 들어간단 들어나는 법이여. 내가 재주껏 세워 보겠으니 간신히 하지 마시오. 내가 이래도 운전 경력 이십년이오"라며 운전승계를 자랑한다.

일곱, 차량봉사부 강 집사님은 고집스럽게 지하 1층과 2층 사이의 통로에 차를 세우는 성도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 "예배 보고 땀방울에 가서 축구 중계 봐야 해요. 미안해요."

주자장서는 신앙질서일지도 모르나.

넷, 차를 세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에는 주자장에서 들은 감사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편집)

일기 옛보기 - 감사일기

농치기 쉬운 감사의 순간들

5월 2일

진정한 감사는 아무 없는 감사다.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어떤 일인 사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그 속에 흠뻑 젖어 본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감사만 느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에 감사하다.

6월 15일

시간을 내어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본다. 뜨겁지도 않고 차가운지도 않은 손은 풀 수 없는 신비다. 바쁜 일상이지만 하루에 한번쯤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손이 하는 말을 들어보는 일이 감사하다.

7월 12일

날마다 지갑에는 돈이 있구나. 물론 많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지갑에는 언제나 그렇게 몇 장의 지폐가 양전하게 열로 누워 있다. 돈이 있는 오늘도 감사하자면 돈이 없어 빈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붙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저녁 노을을 바라보던 지난 날의 가난도 좋다. 그날의 고독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기 때문이다.

10월 10일

그가 하모니카를 본다. 언젠가는 몹시 사랑을 받기도 하던 은빛 하모니카는 몇 년이나 방구에서 아무렇게나 방금고 있었다. 어느날 그는 편백을 집어 얼얼한 몸통 같은 그것을 집어 들고 벽에 기대 앉아 하모니카를 명을 부여한다. 그는 열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오랜만에 함께 생복을 느끼게 했다. 인생 중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이런 순간들을 소유하게 되니 감사하다.

11월 25일

새벽에 무릎 꿇고 묵상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현관하고 신비한 언어를 주셨지만 나의 새백엔 언어가 없다. 한점된 언어는 다 구할 수 없는 언어이다. 그 언어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침묵이다. 나의 경우 침묵 이상의 것은 없다. 침묵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언어가 살아나는 새벽기도의 아름다운 역설(逆說)을 감당할 길이 없구나.

지체들 소식

영아부

태아를 위해 등록한 예비엄마들

“예수는 그 지체와 그 키가 작아가지 하나님과 사람에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란 성경 말씀처럼 영아부 아기 예수님을 땀아 지체와 키가 작을 자라 예수님을 알려 이예는 찬양으로 기도로 아기들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또한 태아를 위해 등록한 예비 엄마들이 있어 새로운 부부가 일어나 정말 감사하다. 태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찬송을 듣고 부르니 이보다 큰 축복은 아마 없지 않을까. 오세요, 예비엄마, 아빠들! 영아부에서 태교를 시작하세요. 주일 아침 9시와 11시 선교관 103호로 오세요. (송혜경 통신원)

유년부

“장난만 치는 줄 알았는데 다들었네!”

지난 주일 유년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3학기 학습평가를 실시하였다. 금년 들어 세번째로 시행된 이 성경 시험은 7, 8, 9월 석달 동안 배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며 바르게 알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번호조그마와 줄긋기, ○×문제 등 골고루 10문제를 출제하였는데 제법 어려운 문제도 적지 않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하! 고너석들! 분반공부시간에 장난만 치는 줄 알았는데 듣기는 다 들었네!” 체재하시는 선생님들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윤옥희 통신원)

초등부

부모님과 함께하는 찬양 부르기 계획

주님의 평강이 각 가정에서 증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스치고 오고 배과 풍성한 가을이 성를 다가오는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 생활 중이라도 꼭 참석하시어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 또한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우리 모두 수급과 비와와 목사의를 합하여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히 가족장을 하시고 싶은 가족이 있으시면 담임 선생님께 꼭 연락하시어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초등부 어린이들과 부모님
언제: 10월 9일(토) 오후 2시 30분부터
어디서: 초등부 예배실에서
무엇을: 찬양 부르기 대회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찬양함
(이미숙 통신원)

중등부

편지로 전하는 마음

이번주 선생님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다. 지도 목사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어 모든 선생님들에게 손수 편지를 보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주일마다 얼굴을 대하지만 지체로서의 만남은 또 다른 그결과 감동을 주었다. 편지를 쓰고 열심히 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지는 것은 선생님의 절필일까? 선생님들은 각자 맡겨진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각도에서 관심을 갖고 편지쓰기를 시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손은경 통신원)

장년부

‘성숙한 성도’에 관한 특강

주제: ‘성숙한 성도는 아름답다’
강사: 김경준 전도사
일시: 10월 10일(다을 주일) 12시 30분
장소: 교육관 314호

장년부

영의 양식을 공급 받자

9월은 잃은 양 찾기로 장기결격자를 중심으로 심방하여 출석을 독려하였고 10월은 장년3부에 해당되는 자로 주일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찾아 모시는 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먼저 교사들이 모여 기도회를 열고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옛세 동안은 육의 양식을 산해진미 좋아하는 것들로 충족시켰으니 주일은 먼저 예배를 드린 후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우리의 영이 살지고 장성해 가는 믿음을 소유하며 노년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마음을 바꾸어 보세요. 4부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은 3부예배를 드리고 12시에 집회에서 점심을 드시고 12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식회에 참석하시어 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스러운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데 하루종일 국수로 점심을 대신해도 비할할 수 없는 기쁨으로 또 한 주년을 말씀의 반석 위에서 힘있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월 이렇게 좋은 계절에 부디와 보세요. 들어보세요.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장년3부(교육관 307호)로 오시기를 60명의 교사들이 환영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들 들어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염미숙 통신원)

소망부

성경암송대회



소망부에서는 9월 26일 성경암송대회를 가졌다. 참가자 35명 중 9월 19일 예선을 치르고 선발된 15명이 본선에 출전하여 시편 139편 전체를 암송하였다. 이종대 지도 목사님께서 몇 주 전부터 목장하면서 암송함으로써 그 자제와 각자의 신앙고백이 되도록 해주셨다. 본 대회는 실시되는 50여분간 출전자들 한 분 한 분이 시편을 암송하실 때마다 노학성들은 숨을 죽이고 본문을 손가락으로 따라 짚어가며 진진한 모습으로 동참하였다. 소망부 전체가 함께 시편 139편을 15독 하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말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시간이었다.

심사 결과 1등은 이39번 최순애 권사님, 2등은 남9번 한인호 집사님, 3등은 이18번 김상순 권사님, 이29번 이홍순 권사님, 이38번 구정애 권사님께 돌아왔다. 그밖에 본선 출전자 전원에게 장려상이 수여되었다. (문희숙 통신원)

에바다부

은 몸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송가

에바다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배후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설립 1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8일 금요일 교회와 10일 주일 찬양예배에 드립니다. 비록 말하고 듣지 못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로 몸짓으로 드리게 될 감사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편 에바다부는 매주 삼삼상이원에서 토요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선생님들이 모여, 삼삼상이원에서는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주신 주님을 소개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에바다부 선생님들의 발걸음이 무척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미안 통신원)

1교구

고 이창근 성도 장례식

9월 17일에 고 이창근 성도의 장례식이 있었다. 91년 평생을 한국 영화계에 초석을 놓으셨던 원로인으로 촬영, 제작, 감독 등 화려함과 온갖 어려움을 감내한 문화훈장의 공로로 거저지니 본인이. 일찍이 새해를 받고 받은 재능을 마음껏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셨다. 그토록 바쁘셨던 모든 일에도 이제 다 내려 놓으시고 영원한 안식처로 가셨다. 우리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같이 마르나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은 영원한 천국에서 찬송으로 꽃 피듯 할 것이다.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루였다. (임영복 통신원)

물·매·들

이런 기도 어떻게요

정영희(신학, 중등부 교사)

한번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남의 기도를 따라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순서는 있지만 틀은 없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틀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자기의 기도를 잘못하며 겉선(7)해 한다. 이 말은 남들의 기도를 흉내내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정확한 표현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너무도 많이 이런 유의 기도를 한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누구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고” “한국과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등등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들어 온 것을 가르치 않고 하는 기도. 이에 대해 한 번 생각하고 반문해 보자. 이 세상 어디에 꼬리 없는 동물이 있는가? 꼬리 없는 동물이 동등 떠다니는 괴물 같은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가? 모두 머리가 되는 세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 땅에서 차별대우 받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누구누구만 특별히 사랑한다면 서로를 저가서 떠는 것이 아닌가? 또 반문한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먼저 훌륭한 구심권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되면 결국 지도자는 없다는 얘기다. 당연히 지도자만 무수히 많아서 있는 공생체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생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도를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 아름답지 않다. 단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신적 괴롭힘이다. 한번쯤은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자. 남에게 들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 마음만을 내 말로 기도하자.

일꾼 이야기

9월 5일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음악예배에서 테니 솔로리스트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렸던 이재욱 성도(실로암찬양대 솔로리스트, 남성중창단원)가 지난 9월 27일 ‘대구콩쿠르’ (한국음악협회 대구지부에서 주관하는 제17회 전국성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재욱 성도는 사귀지자이 전종오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성악으로 편입학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데, 주위 사람들은 앞으로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열정을 주님을 높이는 맑고 깨끗한 찬양을 드릴 기대주로 축망한다고 전한다.

충현복지관

‘하나님 우리’

충현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15일부터 2박 3일간 남해안과 경주에서 ‘하나님 우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하나님 우리”는 해마다 실시하는 여행프로그램으로 올해 벌써 4회째를 맞이했다. 모처럼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의 아름다움 안에서 복귀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정희 통신원)



주요 계획			
구분	시 간	정 소	
주요 계획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주말, 국경일 제외)	본 당	
	IV 오후 1300(주말, 국경일 제외)	본 당	
	V 오후 300 (월요일 제외)	본 당	
English Service		9:00 ~ 4:00	북미권 거주민(Can)
주요 계획	오후 500	본 당	
수업 계획	1:00 ~ 11:00 II 오후 700	본 당	
교과 집회	오후 700	본 당	
세월호 대책	오후 500	본 당	